‘선교난동’ 개신교인들 고소

조계종 종무원 560명, 6월 2일 고소장 접수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종무원 연명한 피해고소는 첫 사례
목사 등 상대로 ‘예불방해죄’ 혐의


유남욱 총무원 기획실 감사팀장이 대표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조계종 종무원들이 올해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봉행 당시 조계사 인근에서 ‘선교’를 빙자한 난동을 부린 개신교인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간 ‘사찰 땅 밟기’ 등 불교계를 향한 개신교인들의 난동 행위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조계종 종무원들이 개별연명을 통한 직접 당사자로 나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종무원 56명은 6월 2일 서울종로경찰서에서 ‘봉축법요식을 방해한 개신교인들에 대한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대상은 예수재단 임요한 목사를 비롯해 현장에서 난동을 부렸던 개신교인 수명, 박준 유튜브 FINER 커뮤니티글 게시자다. 종무원들은 이들의 행위에 대한 직접 피해당사자로서 ‘예불방해죄’ ‘업무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위반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등에 따른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 대표로 나선 유남욱 총무원 기획실 감사팀장은 종무원들의 이번 고소가 종교적 대립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는 진정한 종교화합을 위한 토대임을 분명히 했다.

유남욱 팀장은 “부처님오신날 조계사 앞마당에서 소란을 피운 개신교인들이 이미 개신교단체인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조치됐음을 알기에, 이후 당사자들의 반성과 자성의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려 왔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반성의 기미는 없고 되레 평화나무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종무원들은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유 팀장은 “불교계를 향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일부 개신교인들의 행태와 이를 통한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종무원들이 자발적 연명을 통해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며 “내부 통신망에 고소취지를 올린지 3일만에 55인이 동참했다. 이번 고소가 진정한 종교화합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김봉석 법률사무소 금상 대표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5월 19일 오전 10시~11시 피켓팅과 확성기를 통한 고성방가로 형법 158조에 정한 예불 및 설교를 방해하고 위력으로 종교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특히 우정국로 일대가 집회금지구역임에도 집회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집회신고 후 경찰의 집회해산 명령 및 집회금지 통보에도 불응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착용한 모습들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 기록돼 감염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혐의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당시 현장에 있던 종무원들과 시민들이 제공한 각종 사진과 영상자료들을 경찰 측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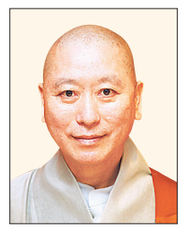
김 변호사는 이어 “과거 봉은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에서 비슷한 사례가 지속돼 왔다”며 “조계종은 오랜 세월 동안 일부 개신교인들의 배타적인 신앙심에 따른 행위들을 관용과 자비로 지켜봐왔지만, 인내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판단에서 고소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고소에 나선 조계종 종무원들은 이날 문서로 배포한 고소취지에서 “일부 개신교인들의 타종교 모독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어긋난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한 일부 개신교인들의 오만함이 공동체 사회의 갈등과 종교간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알려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종교간 화합과 평화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조계종 문화부장 성공 · 사회부장 원경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6월 1일 임명


성공 스님


원경 스님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에 前 사회부장 성공 스님이, 사회부장에 사회복지법인 원각 대표 원경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36대 집행부에서 부장인사가 이뤄진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6월 1일 총무원 교역직 종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이날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임 문화부장 성공 스님과 신임 사회부장 원경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불교신문사 사장에 前 주간 현법 스님을, 주간에는 前 문화부장 오심 스님을 임명했으며, 호법부 호법과장에 석화 스님, 조사과장에 정혜 스님을 임명했다. 법오 스님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에는 덕엄 스님을 임명했다.

원행 스님은 새롭게 소임을 맡게 된 스님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모두가 협력하는 가운데 역할을 잘 분담해서 종무행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 인사이니 부실장 스님과 소임자 스님들은 잘 화합하고 협력해서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백신 접종하고 ‘템플스테이’ 할인받으세요

백신 1차 · 접종 완료자 대상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들은 템플스테이 비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6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참가 비용을 할인한다”고 5월 26일 밝혔다.

문화사업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적극 협력, 오는 6월부터 백신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다.

백신 1차 접종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1박 2일 템플스테이 비용을 2만 원 할인한다. 인센티브는 선착순 총 1만 명에게 제공한다.

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전국 135개 템플스테이 사찰에서 가능하며, 참가 시 해당 사찰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에 앞장서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종식이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1차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까지 마친 후 14일이 지난 사람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싱크탱크 ‘화합과혁신위’ 공식 출범

6월 2일 1기 위원장 정념 스님
출재가 위원 25명 위촉장 수여
한국불교 미래 위한 의제 추진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6월 2일 ‘화합과혁신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한국불교의 새 미래를 열기 위한 의제들을 다룰 ‘화합과혁신위원회’가 1기 공식출범했다. 화합과혁식위원회는 불교발전을 이끌 ‘조계종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아 지난 2019년부터 기획위원들을 중심으로 사전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의 여러 여건으로 공식출범이 미뤄졌다. 출범 준비 단계서부터 한국불교 현실을 진단하고 종단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제를 논의해 온 만큼, 공식 출범 이후 역할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6월 2일 ‘화합과혁신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장이자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위원장으로, 각 분야 중진스님과 재가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위촉식에서 “4차 산업혁명 사회로의 진입 등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특히 코로나19는 물질문명 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종교의 기능과 역할도 크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동체의 화합을 바탕으로 불교를 일신하는 데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념 스님은 이미 지난 2019년 화합과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당시 정념 스님은 사전준비위원회의 형태로 기획위원회를 구성, 2년간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위원회 차원에서 다룰 주요 의제와 방향 수립에 필요한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화엄과 이타행의 생명불교’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5대 목표 40대 과제를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도출한 바 있다. 보고서는 〈한국불교, 새로운 100년 설계를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이며, 외부공개 없이 내부용으로 제작됐다.

위원장 정념 스님은 “한국불교는 문명전환을 맞이하여 패러다임 전환과 혁신을 위한 그랜드디자인을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인만큼 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획위원회의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불교가 처한 현실과 사회문화 흐름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통해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한국불교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위원회가 최선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화합과혁신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전체회의를 소집해 조직 구성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라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종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외국인스님에 활동비 지원

조계종 사회부, 6월 30일까지
한국 · 해외 불교간 교류 목적

한국 사찰에 거주하는 외국인 스님들이 한국에서의 활동이나 한국불교문화를 자국에 소개할 경우 활동비가 지원된다. 외국인 스님들을 통해 한국 · 해외 불교간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최근 처음으로 ‘외국인 스님 자국홍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6월 3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한국 사찰에 거주하면서 불교와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이 대상이다. 스님들이 한국에서의 활동을 온라인 매체에 게재하고 이를 인증하는 캡쳐와 사진 등을 보내면, 성과를 포인트로 책정해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제는 한국불교 문화와 자국불교 문화의 차이점을 소개하거나 한국에서의 활동이며, 자국언어로 본국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유튜브 매체 활동은 50포인트. 자국 신문 및 방송은 100포인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은 각 5포인트가 적립된다. 1포인트당 현금 1000원이 책정되며, 1인 최대 300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국제팀은 “6월까지 1차 지원사업을 진행한 후 하반기 2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2011-1830

송지희 기자

